



성가경연대회



지난 12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가경연대회가 열렸다. 우리 환일인들은 한 해를 함께 웃고 울며 보낸 반 친구들과 화음을 맞추며, 우승과 상관없이 함께 노래하는 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2학년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부른 2반이, 1학년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부른 2반이 금상을 차지했다.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합격 현황

지금까지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 2명, 연세대 18명, 고려대 31명, 의대 2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2명, 포항공과대학(포스텍) 2명, 육사 1명, 서강대 2명, 성균관대 1명, 한양대 9명, 중앙대 11명, 경희대 6명, 서울시립대 3명, 한국외대 6명 등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총 171명이, 기타 4년제 대학에 96명이 합격했다.

서울대에 김성훈(소비자아동학부) · 주진영(화학생명공학부), 연세대에 백승엽(컴퓨터과학) · 오명찬(전기전자공학) · 임준영(기계공학), 고려대에 박종현(의예과) · 공영진(식품자원경제학) · 김현중(사회학과) · 신희찬(기계공학) · 이석현(간호학) · 이승환(전기전자공학) · 필감공(환경생태공학) · 필감성(전기전자공학) · 김충의(식품공학과) · 김한주(식품공학과) · 김준석(건축사회환경공학) · 방재한(화학공학생명) · 홍정의(전기전자공학) 등이 합격하였다. 정시모집에서도 우리 환일고 학생들이 승승장구 하길 기대해 본다.

2-3면. 종합소식

4-5면. 봉학마루제

6면. 명사특강

7면. 말씀, 진로활동

8-9면. 교내대회

10-11면. 합격수기

12면. 수상자

성탄절 예배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성탄예배가 거행되었다. 성탄을 축하하며 올해의 마지막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박종관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가 이어졌다.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가경연대회 우승반, 경찬단의 특별 찬양이 이어져 예배의 풍성함을 더했다.



Merry Christmas!

개교 68주년 기념 가을밤 열린음악회



2015년 9월 24일(목)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개교 68주년을 맞이하여 가을밤 열린음악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본교의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선율에 젖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은미 교장 선생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윤희(중), 박서진(고) 선생님께서 음악회 진행을 맡았고, 본교 합창단이 힘 있는 음색으로 음악

회의 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중·고 학생들의 우쿨렐레, 피아노연주 및 노래와 안근범 선생님의 바순 연주가 이어졌고, 메조소프라노 김영옥, 국악과 학생들의 가야금 연주와 판소리, 신승수(한예종), 정승식(정발고), 가수 이미쉘, 김희석 교수 등의 공연이 이어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2016학년도 수능결의예배 및 응원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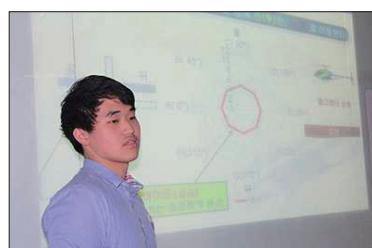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2015년 11월 11일(수)에 본교 대강당에서 수능결의예배가 거행되었다. 교장님, 교감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재학생 모두가 나와 선배들의 고사장 가는 길을 배웅하며 선배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수능 시험 당일에도 재학생 450여명이 새벽부터 각 고사장에 나가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염원해본다.

2015년 추수감사예배 및 성례식



2015년 11월 23일(월) 본교 대강당에서 2015년도 추수감사예배와 성례식이 거행되었다. 추수감사예배에서 김래현 목사님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설교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익주 목사님과 박종관 목사님의 집례 하에 39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다.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들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탐구논문 발표대회



2015년 10월 22일(목) 본교 시청각실에서 학생탐구논문대회 발표가 진행되었다. 논문들 중 우수작은 제30회 서울시학생탐구발표대회에도 출품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에 자연과정 1, 2학년 120명, 인문과정 1, 2학년 87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인문 19편, 자연 37편 총 56편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1년 동안 학생들의 뜨거운 탐구열이 빚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은 탐구논문집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2015년 10월 27일(화) ~ 10월 30일(금) 3박 4일 동안 본교 2학년이 제주도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다녀왔다. 경천(101명), 애국(94명), 애인(156명) 팀으로 나누어 아이스뮤지엄 및 버킷리스트 아트체험장,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등반(어림목-윗에오름-영실), 주상절리 탐방, 신나고 스릴만점 제트보트 스피드체험, 섭지코지 언덕, 세계유산인 성산일출봉, 성이시돌 목장 및 테시폰 방문 등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2016학년도 입학설명회



2015년 11월 3일(화)에 본교 대강당에서 입학 설명회가 열렸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 160여분이 참석하여 본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박종관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김은미 교장님 인사말씀과 본교의 교육과정, 교육활동, 2019 대입제도 안내 등을 경청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본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길 기원해본다.

2015년 11월 28일(수)에 22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초빙하여 (상담교사협회, 중구진로센터 지원) 고1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이 이루어졌다. 개인의 흥미특성과 직업환경의 특성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적성을 탐색해보는 홀랜드 검사를 실시하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학생들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의 꿈 발표 대회



2015년 12월 2일(수)에 본교 대강당에서 고1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발표를 준비하며 막연하기만 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21일 본교 대강당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골든벨 대회가 열렸다. 문제 출제 범위는 김훈의 ‘칼의 노래’ 와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이었다. 많은 참가자들 중 대부분이 초반 문제에서 탈락하고, 패자부활전에서 본선보다 더욱 치열한 대결을 펼쳐 대회에 재미를 더했다.

금상은 1학년 8반 조경민 학생이 차지했다.

고1 집단상담

독서골든벨

<봉학마루제1>

환일의 어느 멋진 날



2015년 10월 15일 환일고등학교 제 17회 봉학마루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작년과 달리 전일제로 진행되었고, 여러 공연들과 전시회, 동아리별 행사 등이 열려 학생들이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

강당에서는 이번 축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1, 2학년 학생들의 무대를 볼 수 있었다. 오프닝 무대는 고등학교 2학년 밴드부가 맡았다. 곧이어 고등학교 1학년 밴드부, 중학교 밴드부의 무대가 펼쳐졌다. 세 밴드부 모두 뛰어난 공연을 펼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어질 무대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밴드부 공연이 끝난 후 학생들의 보컬 공연이 펼쳐졌다. 모두들 뛰어난 연주와 가창력을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한 학생은 공연 도중 여러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능청스러운 대처로 학생들에게 큰 재미를 주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2학년 김광현 학생의 랩 공연이었다. 래퍼 이센스의 '독'을 부른 김광현 학생은 뛰어난 랩 실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준비했던 퍼포먼스도 큰 호응을 얻으며 모두의 기대에 걸맞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곧이어 펼쳐진 2학년 학생들의 댄스무대도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팝송 '업타운 평크'에 맞춰 공연을 펼친 학생들은 공연 막바지에 관객석으로 뛰어드는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인상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 다음 순서였던 김부식 학생의 공

연 또한 마치 진짜 뮤지컬을 보는 듯한 뛰어난 무대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학생들의 기대가 가장 커진 1, 2학년 여장 패션쇼도 학생들에게 큰 재미를 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학년들은 '인어공주', '황진이', '여고생' 등의 컨셉을 선보였다. 2학년들은 '아이유', '효린', '이국주' 등을 본딴 의상을 선보여 열띤 호응을 받았다.

방송부가 준비한 약 20여 분 간의 방송제도 주목을 받았다. 1학년 방송부원들은 '팬더 치즈'광고를 패러디한 '환일 판다'라는 영상물을 제작했다. 2학년은 단편 SF영화 'ESCAPE'를 제작해 상영했다.

마지막 무대는 환일고 학생과 용산고 학생들의 댄스 무대로 장식되었다. 그리고 2부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환일스타리그의 결승전 하이라이트가 상영되었고 이로써 준비되었던 모든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 축제가 자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표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방송부를 비롯한 각종 동아리들과 학생회,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 등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신 덕에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축제가 만들어졌다. 짧은 하루였지만 학업에 지쳐있던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재충전 할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학년 문주형 기자

<봉학마루제2>

신나는 봉학마루제, 독보도서관에서는 무슨 일이?

지난 10월 15일 도서관에서 축제 열려…



우리 학교 도서부는 우리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봉학마루제 당일 독보도서관에서 도서관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도서관 축제는 저자와의 대화 등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축제와는 다르게 상설 전시마당과 참여마당으로 나뉘어 꾸며졌다.

먼저 상설 전시에서는 '유형별 추천 도서' 와 '도서 추천 웹툰'을 전시하고 '3인 3색 작가' 영상물을 상영했다. '유형별 추천 도서'에서는 관람자의 책 읽기 유형을 검사할 수 있는 표와 각각의 유형에 따른 추천 도서를 전시했다. '도서 추천 웹툰'에서는 유익한 도서를 재미있는 카툰의 형식으로 풀어내어 추천해 주는 실제 웹툰을 인쇄하여 전시했다.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상영실에서는 국내 작

가인 김소월, 황순원과 소설 '자기 앞의 생', '새들은 폐루에 가서 죽다' 등의 작가인 로맹 가리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참여 마당은 '도서관 보드게임', '독서퀴즈', '릴레이 소설'로 구성되었다. '도서관 보드게임'은 놀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게 할 수 있도록 일반 보드게임에 여러 책에 대한 문제와 도서관 관련 미션을 결합시킨 것이다. 독서퀴즈는 1, 2학년의 국어 교과서에서 지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에서 출제된 문제들의 정답을 맞히는 프로그램으로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 다. 릴레이 소설은 도서관 입구에 마련된 전지에 도서부가 제시한 첫 문장의 뒤를 이어 관람자들이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으로 학생들이 가장 활발히 참여한 프로그램이라고 도서부는 밝혔다.

여러 학생들은 봉학마루제의 전시마당, 먹거리 마당, 공연 마당의 여러 프로그램들에도 불구하고 독보 도서관에 찾아와 축제를 즐겼다. 한편 도서부의 부장인 정우진 학생(2-2)은 "이번 축제는 부원들이 작년 축제보다 더 공들여 준비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는 학생들의 참여가 적어서 아쉬웠다" 라며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2학년 임영택 기자

<봉학마루제3>

오감놀이 한마당



이번 봉학마루제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소통하는’ 다채로운 축제였다. 지난 축제들에 비해 특히 다양한 이벤트와 스포츠 활동이 많이 추가 된 점이 특징이다. 도자기 핸드 프린팅 행사, 인절미 떡메 체험, 페이스 페인팅,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환일스타리그, 모델수업 및 워킹연습, 이미지 컨설팅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또한 축구, 농구, e-스포츠(스타리그), 원통 돌리기, 단체줄넘기, 훌라후프통과하기 등 스포츠를 통해 선후배들과 몸으로 부딪치며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봉학마루제를 맞아 대안교실 학생들이 카페바리스타 시연행사를 열어 풍미깊은 커피를 선사하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가장 인기가 많은 코너가 되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한 잔의 여유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교실 학생들에게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봉학마루제4>

볼거리 먹거리 한마당



청명한 하늘 아래, 조형물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 키높이 정도의 우수작들이 위엄 있게 봉학마루제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반기고 있다. 학교 건물을 따라 길게 늘어선 조형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20개의 동아리가 참여하여 풍성한 전시를 하고 있는 경천아트홀로 이어진다. 각 동아리들은 그동안의 활동과 결과물을 사진과 글, 조형물, 그림 등으로 담아내어 풍성한 전시마당을 꾸몄다. 미술반은 작품전시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모델로 하여 크로키 시범을 보이기도하고, 수학동아리

벡터는 수학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축제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다.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빵, 아이스크림, 코코아, 팝콘치킨, 파배기, 츄러스, 핫도그, 어묵, 솜사탕, 떡꼬치 등 10가지가 넘어 더욱 풍성한 먹거리 한마당이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실 줄 몰랐다.

<명사특강>

진화냐, 창조냐, 융복합이란?

경희대학교 약학대 정서영 교수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강당에 입실하여 정서영 경희대 약학대학 교수님의 명사특강을 들었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강의는 과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약학대학 교수님께서 약학에 관한 진로내용이 아닌 현대의 과학의 그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과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전문적으로 이야기 해주셔서 강의 내용이 부담스럽지는 들리지 않았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꺼내신 말씀은 융복합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융복합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피라미드 구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열역학 제 1법칙과 2법칙을 설명하시면 DATA-IMFORMATION-KNOWLEDGE-WISDOM 순으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식을 진정한 지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음으로 말씀 해 주신 것은 진정한 과학과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어로 두 단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SCIENCE와 SIENTISM의 차이였다. 진정한 과학은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되므로 100퍼센트가 아니라 내용이었다. 즉 SIENTISM은 근본적인 과학에서 지키는 확률과 통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SIENTISM은 제한

(limit)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로는 빅뱅이론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주셨다.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빅뱅이론 5분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하였지만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대답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빅뱅이론은 빅뱅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이론에 하나로써 그 이론의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때에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빅뱅 이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므로 문제 자체에 오류 즉,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로써 과학은 제한이 있는 학문으로써 과학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주셨다. 또 교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관한 말씀으로써도 과학은 제한이 있는 지식이므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지성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의 근본성질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지식을 쌓아서 그것을 진정한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지식인이 아닌 지성이 될 수 있도록 가치적인 것보다 비가시적인 근본적인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학년 김현종

<미래비전특강>

현재에 만족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박용택 선수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6,7교시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미래비전특강을 들었다. 그동안 많은 강사 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LG트윈스 박용택 선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특강 시간을 가졌다. 평소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특강을 들을 수 있었다.

박용택 선수는 오랜 기간 꾸준히 잘 하는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자기관리와 훈련으로 좋은 성적을 내어 지금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베테랑 선수이신데 이러한 모습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꼭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든다.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 자신이 하는 일에 소홀해 질 수 있는데 이럴수록 더 초심을 잊지 말고 꾸준하게 일에 임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강 내용 중, 박용택 선수께서 인생에서든 야구에서든 꼭 한 번씩은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하셨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며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서 포기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박용택 선수도 엄청난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면서까지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한다. 자신이 뛰고 싶은 팀에서 야구를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결국 그 슬럼프를 넘어 7년 연속 3할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셨다. 만약 그때 포기하셨다면 박용택 선수는 지금의 자리에 없고 슬럼프에 좌절한 실패한 선수라고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박용택 선수의 특강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야구선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정말 비슷하다는 점이다. 야구와 인생 역시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마침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택 선수에 의하면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선 대학가기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만큼 경쟁률도 높다고 한다. 설령 야구선수가 된다 해도 한 팀의 주전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피와 땀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용택 선수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한다면 그것보다 행복할 순 없을 것 같다.

우리도 지금, 어딘가에 있을 꿈을 향해 지금 이 시간으로 하고에서 웬을 쥐고 있다. 하지만 '일단은 명문대부터'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는데 박용택 선수의 특강을 듣고 명문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 사회에 나아가 경쟁력 있게 부딪히려면 열정과 노력은 필수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 일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강은 여러모로 내게 큰 도움이 되었던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런 값진 강의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1학년 이승재

〈선교칼럼〉 성경 : 빌 2:6-11

**1. 크리스마스의 유래**

하나님은 대사의 일자를 감추시는 섭리를 가집니다. 창조, 홍해사건, 시내산 십계명, 탄생, 재림 등 일자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모릅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교회가 지키게 되었는가?

로마에는 12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사터날리아-사터신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시기랄리아-어린이에게 인형 주고 축제하는 것입니다. 부르말리아-동지절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런 절기에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세속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무료했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절기로 삼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연구하고 의논한 끝에 태양이 다시 뜬다는 동지에 정하여 12월 25일로 하였습니다. 리베리우스 역사책에는 기원 2세기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디오니시우스가 6세기경에 12월 25일로 확정했습니다.

테를교수는 “로마의 동지절은 태양신 미스라의 숭배와 같이 12월 25일인데, 273년 이레리안이 이를 경축일로 정했다. 이 날은 태양의 탄생일이라 했다. 5세기에 이를 채용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 하였다”고 중언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나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을 성탄절로 지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 날짜보다 왕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2.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나신 의미

1)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인간이 된 하나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롬8:3)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빌2:8)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란 지극히 낮아지심과 인간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종의 형체란 죄인을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난, 비참, 죄의 형벌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나심부터 가장 천한 길을 택하셔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셨을 때 받은 선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선물은 나실 때는 말구유와 가실 때는 섭자가로 나무토막 두 개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이해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섬기려고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전문직업인 초청 Dream Festival

2015년 10월 20일(화)에 의사, 경찰, 교사, 항공기 조종사, 바리스타, 창업 경영자, 세무사, 건축가, 심리상담가, 성우, 광고 기획가, 군인, 모델, 항공기 정비사 등 12개 직업군 총 40개 직종에서 전문직업인이 본교를 방문하여 1, 2학생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던 일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과 얼굴을 마주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유익한 정보도 얻어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난 모습이었다.

2015년도 전공 설명회

2015년 11월 4일(수)에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 분야를 간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2개 학과, 한양대 4개 학과, 건국대 3개 학과, 용인대 8개 학과, 서울시립대 1개 학과, 한체대 1개 학과, 명지대 2개 학과, 관동대 3개 학과, 동양대 2개 학과 총 9개 대학 26개 학과에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학생들 또한 진지한 자세로 전공 탐색에 임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

박종관 목사님

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타락된 상태를 친히 맛보시고 그 속에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세계에 나셨습니다.

2) 역사적 사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체와 능력을 떠나서 피조 세계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일하시고, 피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2:6) 라 했습니다. 구원역사는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그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의 모퉁이 둘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 역사를 건물로 보면 그 건물의 모퉁이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전 역사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전환점과 모든 사랑의 최고점과 모든 구원의 출발점과 모든 예배의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3) 성육신과 부활

부활을 잊어버리면 성탄의 참 의미가 숨겨집니다. 본문 6-7절은 그리스도 나심을 볼 수 있고, 8절은 그리스도 고난이 나타나 있고, 9-11절은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 아답이 실패한 인간의 영생을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성육신의 영원한 근본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오셔서 고난의 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나” (벧후 1:4하)라고 했습니다. 부활까지 계획된 것이 성육신입니다. 사우어는 “우주 역사의 중심으로서의 성탄이다. 동시에 우리 개인생활의 중심도 성탄이다. 또한 우리 미래의 목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우주가 찬양할 역사의 대사입니다.

성탄은 사랑과 평화와 소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사역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목 된 자는 불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성탄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환일인들의 마음이 아기예수님이 누우신 말구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구 진로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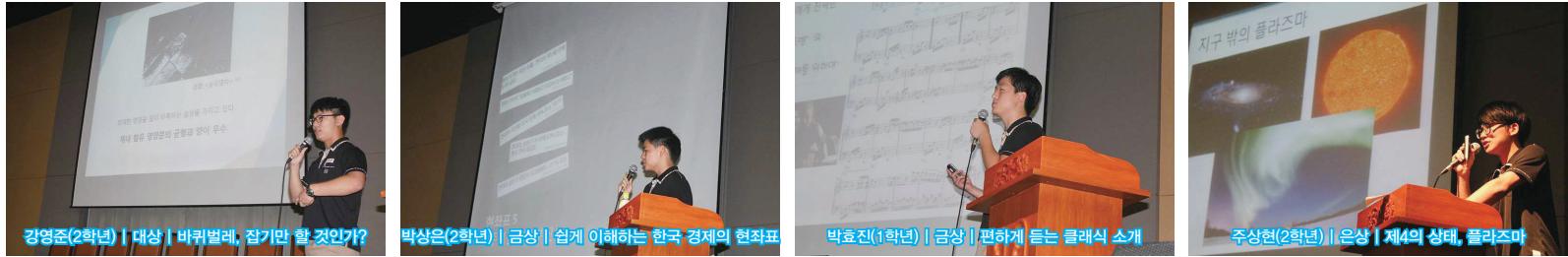
2015년 10월 23일(금)에 고1 학생들이 중구 훈련원공원과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부스에서 미래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구청과 청소년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과 다양한 직업군의 종사원, 멘토가 되어줄 대학생 등 총 1천5백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직업상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대학생들이 전공 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과 간이 적성검사를 해보는 진로정보존,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진로설계존, 미래유망직업 등을 체험해보는 직업체험존 등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MRA/IC 동아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견학

2015년 10월 31일(토)에 MRA/IC동아리 학생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방문하여 역사바로알기 캠페인 및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08년부터 1987년까지 80여 년간 운영되었던 대표적인 수형시설이었던 ‘서대문형무소’의 옥사 및 사형장 등을 보존·관리하고 관련 유물 및 자료 등을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역사체험의 현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곳을 견학하며 학생들은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며 올바른 역사의식과 역사적 정체성 함양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제2회 학생특강대회



2015년 9월 22일(화) 본교 대강당에서 제2회 학생특강대회가 개최되었다.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학생들이 본선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2학년 11반 강영준 학생이 "바퀴벌레, 잡기만 할 것인가?"는 주제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상 요약문>

바퀴벌레, 잡기만 할 것인가?

2학년 강영준

안녕하세요? 2학년 강영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퀴벌레를 싫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발표로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를 바퀴벌레에 대한 경외로 바꾸어드리겠습니다.

바퀴벌레는 공룡이나 기도 전인 4억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외형도 바뀌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공룡들을 멸종시켰다고 생각하는 윤석중돌, 빙하기 등등 어떠한 사건도 바퀴벌레를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옛날 이집트에서 저술된 <사자의 서>에서 "나에게서 떨어져라, 이 미친한 바퀴벌레여"라는 문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대부터 가내 해충으로서 천대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문학적으로 인간을 조롱하는 의인화의 대상이 되고, 예술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대체 무슨 비법으로 바퀴벌레는 지금까지 생존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병원체, 즉 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를 모두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바퀴벌레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병을 풀기는 이유는 병에 걸려 병원균의 속주가 되어 주어서가 아닙니다. 병원균을 묻히고 이동해서입니다.

바퀴벌레의 생존본능은 위급한 상황에서 최대 300이 넘는 IQ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꼬리 쪽에 있는 어떤 기관은 진동을 느꼈을 때 매우 빠른 반사를 통해 그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물리적인 공격으로는 보통 곤충들보다 죽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바퀴벌레는 물질대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눈앞에 나타난 바퀴벌레를 잡지 못하고 다리 하나만 자르고 도망갔다고 했을 때 바퀴벌레는 자기 몸 안에 물질대사를 촉진시켜 생체 주기를 빠르게 하여 며칠 후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바퀴벌레는 음식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고립되어도 물질대사를 느리게 하여 얼마든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방사능에 강한 면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800rad의 방사능에 노출되면 사망합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67500rad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되어도 거뜬히 생존합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장면을 보시고 경악하신 사람들은 정말 많으실 테지만 사실 바퀴벌레의 몸 안에는 엄청난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최대한 영양을 저장해놓으려는 습성 덕분에 배가 다 차도 영양분을 몸 안에 저장하기 위해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기어 다니는 보아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징그러우셨죠? 그럼 이제 바퀴벌레를 죽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구제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 확실한 방법만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먹이형 살충제입니다. 독일 바이엘사에서 만든 맥스포스 젤로 유명한 독먹이형 살충제는 말 그대로 일단 먹으면 죽는 독이 있는 먹이로 바퀴벌레를 죽입니다. 하지만 독먹이에 있는 유인제 때문에 바퀴벌레들의 식성 변화가 일어나 애초에 독먹이를 안 먹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독먹이 외의 다른 먹을

것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독먹이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량의 여러 독먹이들을 둘러가면서 사용해 봐야합니다. 이것은 한두 마리의 바퀴벌레가 나타났다면 정말 확실한 방법이지만 만약 개미집처럼 군집을 이루고 있다면 큰 효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세스코를 부르세요. 1588-1119 세스코 깨끗한 환경으로 건강한 내일을 약속하는 세스코가 여러분의 미소를 지켜드립니다.

그런데, 꼭 죽이는 방법만 생각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바퀴벌레들은 장점이 참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바퀴벌레들의 장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바퀴벌레는 모든 질병에 면역입니다. 바퀴벌레의 면역 세포들이 수많은 병원체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는 바퀴벌레의 면역 세포에 대한 비밀을 풀면 아마 우리는 꿈에 바라던 전염병 없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퀴벌레는 물의 물질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뜻은 생체 주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 효과는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사용하지 못하는 실험동물들의 생체주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실험동물로 더 빠른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방사선을 막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지구 주위에는 많은 인공위성들은 항상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퀴벌레의 방사능 면역의 비밀이 풀리다면 그 메커니즘을 인공위성의 표면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퀴벌레는 지름을 무시하고 빠르게 달 수 있고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순간 속력 150km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동력을 인정하고 미국 UC 버클리 팀에서 바퀴벌레로봇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동력을 가진 로봇이 인구조나 동굴탐사 등에 이용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벌레는 그야말로 영양 데어리입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는 단백질 블록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바퀴벌레는 실제로 보약이나 한약에 재료로도 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약품에 쓰일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쿠바에서는 복통 약으로 바퀴벌레를 먹습니다.

바퀴벌레의 장점은 상상을 초월하고 수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연구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퀴벌레 뿐만 아니라 지구생물 종의 70%는 곤충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적응했고, 그 속에 자연의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이제는 곤충에 눈을 돌려보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교내토론회



제6회 교내토론회가 11월 13일(예선), 14일(본선) 이틀에 걸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낸 시리아인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1, 2학년에서 총 37개 팀(111명)이 예선에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 중에 8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결승전에서 2학년 '정시워리어' 팀과 '권주희선생님사랑해' 팀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정시워리어' 팀이 금상을 차지했다.

<금상-찬성 입론서>

<온상-반대 입론서>

'권주희선생님사랑해' 팀-2학년 김창수, 신명규, 하승원

최근 시리아에서 장시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를 탈출해 다른 유럽 국가들로 망명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논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반 논쟁의 쟁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경제적 측면이고 두 번째 쟁점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이 쟁점들에 대한 찬성 측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난민의 수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출자를 저하로 인한 인력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인데 독일은 이를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호주에 유입된 시리아 난민은 호주 세수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호주 통계청은

'시리아 난민이 일반 이민자보다 훨씬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보여줬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터키의 경우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EU로부터 3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바꿔보았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리아 난민 허용은 우리나라에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난민들을 허용하여도 충분히 일자리를 마찰 없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피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절실히 난민들을 골고루 배분한다면 구직자들과의 마찰을 빚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국가입니다. 이를 세계에 더욱 알려 향후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경제, 정치 등 각종 외교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인도적인 차원이 아닌 이러한 실리적인 부분에서도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구조 및 복지 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 세계 난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난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대립, 그리고 IS의 테러 활동으로 인해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해외로 퇴거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유입된 난민 신청자 수는 다른 중동 국가의 난민 수 포함 약75만 8천 명 정도이며, 올해 들어 저출생률을 넘어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넘어온 전체 난민은 총 74만4000여명에 이릅니다. 그 중 절반 정도가 시리아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아 시리아 난민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난민의 수도 약600명에 가까운 수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리아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쟁점에서 이 주장을 도출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측면, 둘째는 사회적 측면, 셋째는 문화적 측면입니다.

첫째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경제 위기는 물론 난민들에게 공급될 여러 물자와 자본들도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난민들이 향하는 유럽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최근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스 등 유럽행 난민이 주로 거처가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습니다. 또 상당수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터키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이탈리아는 하루에 난민을 위해 약 4억 원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난민들에게 이러한 자본을 지원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복지 제도가 유럽에 비해 뒤처진 우리나라에서 과연 난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는

선례라 볼 수 있는 유럽의 사회와 차이가 분명히 있고, 유동 인구도 적고 인구 밀도도 높은 우리사회를 유럽의 사회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편의시설과 관련 법의 협력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한번 난민이 독일로 향하는 만큼 이후 계획해서 엄청난 수의 난민이 독일로 향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한번 난민의 유입을 허용한다면 많은 난민들이 몰릴테고 그들을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조건적 수용은 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로 준비가 되고 나서야 난민의 유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문화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직 국내 여론 상 난민들은 아직 낯선 존재이고 많은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한 반발도 많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낯선 우리나라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분명 많은 문화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대 시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등 문화적 화합이 아직 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갑자기 수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때 기대되는 문화적 통합은 예상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엔 많은 결함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산출물대회

〈발명부문 금상 요약글〉

높이 조절 가능한 좌변기

2학년 오부환



이 발명품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구상한 좌변기이다. 양 옆의 지지대가 좌변기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함과 동시에 들어 올려주고 좌변기의 높이가 변함에 따라 배출구와 수도관도 함께 들어나도록 만들었다. 기존의 좌변기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볼 때 주변으로 튀어 비위생적이다. 뿐만 아니라 좌변기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어 앉아서 용변을 볼 때 올바른 배변자세를 취하지 못해 쾌변을 하지 못하거나 치질 등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본 발명품은 양 옆에 있는 지지대의 길이가 변함에 따라 좌변기의 높낮이가 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준다. 길이가 변하는 지지대는 유압장치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 있는 액체의 한쪽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그 세기에는 변함없이 같은 크기로 액체의 각 부분에 골고루 전달된다는 법칙인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때 좁은 공간에서 힘을 주면 넓은 공간의 모든 부분에 같은 크기의 힘이 전해지므로 면적이 넓은 공간에 무거운 물체를 두게 되면 작은 힘으로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좌변기를 들어 올리게 되면 변기의 배수관 부분이 바닥에 있는 배수관과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바라 호스를 끼워서 틈이 새지 않도록 잘 부착하면 지지대의 길이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바라 호스의 길이도 변하면서 배설물이 새지 않고 정확하게 바닥의 배수관으로 통할 수 있게 된다.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꽂을 수 있는 콘센트

1학년 오세훈



1. 제작 동기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 콘센트의 요소가 잘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했다.

2. 제작 목적

이 작품의 제작 목적은 어두운 곳에 서의 콘센트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터치센서와 LED 램프를 사용하여 플러그를 꽂는 요소를 잘 보이게 하여 콘센트 사용이 필요시에만 점등을 하게 함으로써 콘센트 사용을 편리하게 해준다.

3. 작품의 원리

AC-DC 컨버터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AC 220V 전류를 DC 5V 전류로 변환하여 터치센서 및 LED 램프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한다. 어둠 속에서 콘센트를 어떤 부위로든 터치하면 터치센서가 동작하여 콘센트의 내부 바닥면에 부착된 LED 램프가 점등되어 플러그를 꽂아야하는 요소를 잘 보이게 해준다. 또한 플러그를 요소에 꽂고 난 뒤, 터치센서를 다시 터치하면 LED 램프가 점멸하게 된다.

〈과학부문 금상 요약글〉

물의 극성과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 미적 장치 개발

2학년 이옥구 진우빈 하승원

1. 탐구목적

물의 극성때문에 물줄기를 대전체 쪽으로 가져다 놓을 때 대전체 쪽으로 물줄기가 흔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과 전반사 효과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적 장치의 개념적 버전을 만들고자 했다.

2. 탐구 과정

물의 극성과 결합하여 떨어지는 물줄기가 휘어지도록 작용할 충분한 대전력을 지닌 대전차를 검증한 후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물줄기의 휘어짐 각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최적의 '대전력 x 거리' 조합의 도출을 하였다. 이상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물의 극성과 전반사를 활용한 미적 장치의 개념적 버전 제작하였다.

3. 탐구 주요 내용

먼저 우리는 평범한 축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휘게 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축전기는 물을 휘게 만들기에는 전하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따라서 상당한 고전압을 생성하는 반데그라프 장치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실험은 반데그라프의 세기와 거리사이에 따른 물줄기의 각도를 측정해 가장 안정적이면서 이 상적인 각도를 찾았다. 그 다음에는 물줄기가 휘어질시 전반사 효과로 인해 빛 또한 휘어지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적장치 모형을 만드는 것인데, 모형의 상단부에는 물탱크, 중단부에는 미적장치 그리고 하단부에는 반데그라프 장치로 구성하였다.



〈수학부문 금상 요약글〉

축구에서의 승리기여도 계산

2학년 김형석 김철호 강영준

1. 탐구 동기

우리의 축구에서의 승리기여도는 야구에서의 WAR을 축구에 대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야구에서는 WAR이란 지표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가치를 한눈에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그런 수치가 거의 없다. 그래서 축구에서도 WAR과 같은, 선수들을 평가할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2. 탐구과정

일단 승리기여도 계산에 필요한 수치들은 FM이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었다. 실제 축구에서 자세한 기록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어떤 기록을 계산에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였다. 야구에서는 타격, 주루, 퍼팅, 수비등의 분야로 나누어 계산을 한 뒤 더하지만, 우리는 공격, 수비 2가지로 나누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탐구결과

○ 공격-득점, 어시스트 : 축구에서는 아웃제도가 없어 득점은 단순히 1, 어시스트는 1/2이다.

키 패스 : 키패스로 얻을 수 있는 기댓값에 선수당 키 패스 횟수를 곱한다.

드리블 : 11명 중 1명을 재치는 것임으로 1/11과 드리블 횟수를 곱한다.

크로스 : 크로스로 얻을 수 있는 기댓값에 크로스 횟수를 곱한다.

○ 수비-인터셉트, 공중볼, 태클 : 인터셉트, 태클과 공중볼을 땀으로 써 그 팀의 선수들은 공격할 기회를 얻는다. 따라서 경기당 득점과 이를 고려하여 공식을 구한 뒤 그 횟수를 곱한다.

○ 실책 및 반칙- 패스 실패 : 경기당 실점에 패스실패를 곱하여 공식을 구했다.

실책 : 실점으로 연결되는 실책의 기댓값에 실점횟수를 곱하고 4를 곱했다(심리적 영향)

레드카드 : 레드카드는 거의 실점과 마찬가지 이므로 -1에 횟수를 곱하였다.

옐로카드 : 누적 옐로카드는 레드카드로 이어지는것을 고려하여 구했다.

○ 활동량-평균(11.5)보다 더 뛴 양 만을 고려하여 그대로 득점 기댓값으로 하였다.

○ 골키퍼-득점, 실점에 1/11을 곱한다(모두의 책임)

○ 반칙 조정-미드필더 평균을 기준으로 수비수는 +0.7 공격수는 -0.9 차이가 나고 수비수는 공격수마음 반칙이 적으면 실점을 평균에 비해 약 6개 더함으로 수비수에 3을 더해주고 공격수에 3을 빼준다(단, 미드필더는 기준이라 조정값이 0이다.) 승리를 위한 최소 득점은 야구에서와 같이 임의로 4점으로 두었다.

○ 기댓값-키패스 기댓값 : 0.024

크로스 기댓값 : 0.033

실책 기댓값 : -0.016

위에 모든 수치를 더하여 한 선수의 승리 기여도를 얻는다.

○ 겸산식-한 팀의 모든 선수의 승리기여도를 합한 값이 팀의 실제 승리 수와 같으면 겸산 식이 성립한다.

제2회 교내모형항공기대회

2015년 10년 15월(목) 제17회 봉학마루제의 시작을 축하하며 본교 운동장에서 제2회 교내모형항공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학년별로 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 두 부문으로 각각 진행되었는데, 작년보다 높아진 참여율과 더욱 정교해진 항공기 모형은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주었다. 비록 기체가 맥없이 하강하기도 하고, 나무에도 걸린 적도 있었지만 참가자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무동력기 부분 금상은 1학년 선주송, 글라이더 부문 금상은 1학년 정기원 학생이 차지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반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한 김성훈입니다. 제가 후배님들의 대학입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1. 내신등급 / 수능 최저 반영 유무

서울대학교 기준 : 1,24 / 수능 최저 없음

연세대학교 기준 : 1,11 / 국영수탐 중 3개영역 등급 합 6 이내

2. 집중준비기간 / 준비한 내용

제가 합격한 전형인 서울대학교 일반전형과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은 모두 학생부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3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부전형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내신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신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스펙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의 경우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뛰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반고 학생인 우리는 내신을 하나의 스펙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1학년 첫 시험부터 3학년 마지막 시험 까지 내신 시험 전 한달 동안은 다른 모든 활동을 접고 내신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대학교와 달리 서울대학교에 경우 1학년 내신의 반영 비중의 매우 크고 전 과목이 평가에 반영되므로 1학년 때부터 전 과목을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경계열을 희망했던 저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교내활동을 하며 스펙을 쌓아갔습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활동했던 경제동아리에서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여러 동아리 활동들을 직접 기획했으며 이는 나중에 제 자소서 컨셉을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리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학년 때 학교장 추천을 받아 UNIST로 경영학 캠프를 다녀오기도 하였고 교내 토론회, 탐구논문대회, 경제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등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학생부 전형의 또 다른 요소인 자기소개서의 경우 고3 여름 방학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컨셉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 담임선생님과의 많은 상담을 통해서 컨셉을 잘 잡을 수 있었고 제 강점을 부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전형은 인성면접이 아닌 심층면접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저는 고3 여름방학부터 면접학원을 다니며 면접 대비를 하였습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 제시문내용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추가질문에서 시사적인 것을 물어 볼 수 있기에 저는 이를 대비하여 평소에 신문을 읽고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해 정리해 놓았고 실제로 연세대학교 학우 전형 면접에서 제가 정리 해놓은 기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답변을 손쉽게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고사의 경우 경영, 경제, 소비자, 농경제 등 상경계열의 학과 면접에서는 고난이도의 수학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저는 이를 대비하여 평소에 수능 수학 공부를 할 때 고난이도 수학문제를 많이 풀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3. 성공요인

꾸준한 노력을 통해 약점이었던 수학과목 극복을 통한 내신 상승곡선이 제가 대입에서

꾸준함과 성실히 갖추자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합격〉 3학년 김성훈

성공 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수학내신을 1학년 3등급에서 2,3학년 1등급으로 상승 시켰으며 내신 점수도 1학년 1,54에서 3학년 1,0으로 상승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학 실력 상승과 내신 상승은 교수님들께 제 꾸준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고 자소서 1번 항목에 쓸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당장 뛰어난 학생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후배님들도 지금까지의 내신에 좌절하지 말고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후배에게 하고 싶은 조언

첫째, 수능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수능은 정시 모집뿐만 아니라 수시모집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수능최저기준이 4개영역 등급 합 6이내인 연세대학교 문과 논술전형에서 반을 훨씬 넘는 지원자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여 떨어진다는 통계지표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경우 수시를 지원할 때 부담 없이 상향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능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고2 겨울방학은 그 어느 때 보다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그 시절을 효율적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수시 시즌이 지나면 긴장이 풀리며 공부를 전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시의 성패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성공을 위해서는 수능 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선생님을 믿으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것이 학력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특히 수시 시즌에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대학을 선택할 때 선생님과 여러 번 상담을 통해서 자소서의 내용을 정하고 수시원서를 집어넣을 대학을 정한다면 학력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내신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내신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학생들은 내신점수 관리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교내활동에 모든 힘을 쏟곤 합니다. 많은 교내활동을 통해 스펙을 쌓아 가는 것도 좋지만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는 공부와 교내활동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희망 지원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에 맞는 교내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부차적으로 다른 여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 미리미리 메모해 두세요. 자소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교내활동 후에는 그것에 관하여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고 성실히 노력한다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저를 신경 써 주시고 치도해 주신 환일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2,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박경하 선생님, 양경숙 선생님, 박현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은 수시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합격〉 3학년 주진영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부보단 잡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밤을 세워 공부하면 그만한 성취감이 있고 공부양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11시 이후에 공부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이 좋지 못했습니다. 야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바로 자는 것이 수업을 들을 때나 자습을 할 때 집중력을 훨씬 높여줄 수 있습니다.

2. 자소서와 면접

자기소개서와 면접 모두 눈앞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특출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입사관이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한 수백 명의 학생들을 평가하는 셈입니다. 자소서든 면접이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이끌어 나가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3. 수시가 답이다

1. 2학년 내신등급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신을 쉽게 포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일반고로서 수시가 정시에 비해 훨씬 유리하기도 하고,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수시로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입시에는 특별한 비법이나 편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실력만큼 나오는 것이 입시입니다. 어떻게 갈지만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 실력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적어놓고 보니 너무 진부한 얘기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 적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합격 수기나 공부법을 적은 책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본인밖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육군사관학교 합격〉 3학년 권용학

조언을 구하여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은 자소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신정섭 담임선생님께 아낌없는 피드백을 받고 진실된 글을 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면접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은 면접 태도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점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러나는 사고가 학생들 간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신문을 읽으며 시사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과 같은 논리적 말하기 연습을 주기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작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3. 수학능력시험

국어의 핵심은 발문에 있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지문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할지를 빠르게 판단하여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기출문제를 가지고 반복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자꾸 다른 방법을 찾다보면 여러 개념이 융용된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는 연계를 기본으로 비연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연계 준비에도 역시 기출문제가 좋습니다.

사람과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 끝내고 내신을 준비하며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과 수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학년도에 졸업하는 권용학입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일반정시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최종합격하여 수시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글이 교지에 실린다는 것이 기쁘고, 후배님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육군사관학교

- 1차 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을 위해서 7개년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수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출이 답입니다.

- 2차 시험

면접과 체력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을 위해서는 잠시 공부를 접어야 했습니다. 예상 질문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토론주제의 찬반입장과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체력시험은 혁동명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약 2주간 등교 후 달리기, 점심식사 전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 고려대학교

-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 항목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교내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합격수기

자만과 방심은 금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합격〉 3학년 박종현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합격한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글이 후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학 / 학과 / 전형 : 고려대학교 / 의(예)학과 / 융합형인재전형
내신등급 / 수능 최저 반영 유무 : 1.19 (고려대학교 기준) / 3개영역 등급 합 4이내(고려대학교)

1. 수시에서 내신은 필수

인문계 고등학교가 특목과와 같은 고등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내신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 내에서 쟁쟁한 친구들과 내신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쉽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신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만과 방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3학년이 되는 2학년 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학년 1학기 내신의 중요성입니다. 3학년 1학기는 모든 친구들이 너나할 거 없이 공부하는 시기이자, 자칫하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이며, 또 내신반영비율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신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작같이 공부해야합니다.

2. 수시에서 수능이란

우선 수시에서 수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 정시로 대학을 가야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또 최저등급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다른 학과들보다 높은 최저등급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대에 지원하는 후배님들은 절대 수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신과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자만과 방심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영역에서 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저도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 2개를 틀리고 말았습니다. 6.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영어시험은 평이하게 나왔고, 'EBS연계교재만 여러 번 돌려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영어공부를 소홀히 한 것이 수능에서 영어를 땅친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후배님들은 지금 자신있어하는 과목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성들여 공부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 대학이 원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을 비롯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3년 동안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잘 만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농생대 캠프, 공대캠프, 이공계학과탐험캠프 등 외부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학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부를 잘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활동이 아닌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과인데 문과친구들이 주로 참가하는 대회(토론, 글쓰기 등)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융합형인재전형의 경우 말 그대로 융합형 인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참여했던 다양한 교내영어대회나 교내토론대회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여했는데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참가했다는 사실과, 준비과정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내대회에 느낀 것은 자기소개서에 녹여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에게 모든 교내대회에 참여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를 자신의 꿈과 연관 지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도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의 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꿈이 의사인데, 명사특강 중에서 로봇공학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면 '로봇이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봄'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관심 있는 과목은 물론이고 다른 과목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자기소개서는 미리미리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아직 멀게만 느껴질 자기소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있을 때 자기소개서를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완벽하게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뿐리, 기틀만 마련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1학년 후배님들은 2학년이 되어서 어떤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학년 후배님들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다면 3학년 때 자기소개서에만 허덕이지 않고, 수능공부도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불안과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하는 자만이 패거를 이룰 수 있습니다. 후배님들도 꾸준히 공부하셔서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끈기있게

〈카이스트 합격〉 3학년 조재한



1. 지원대학 / 학과 / 전형
카이스트 / 무학과 / 일반전형
2. 내신등급 / 수능 최저 반영 여부
1.22 (전 과목, 각학년 반영비 동일) / 수능최저없음
3. 집중 준비 기간
자소서 쓰는 8월, 수능 끝난 후 약 2주 면접대비
4. 준비한 내용
저 같은 경우 면접 경험이 부족해 면접에서 말을 트기 위해 수능이 끝난 후 말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심층면접의 경우 대비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므로 평소에 원리 위주로 이해해가며 꼼꼼히 공부한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 성공 요인

1순위로 내신을 잘 쟁긴 것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제 내신 평균 내신 성적은 1.5 정도였습니다. 낮은 성적은 아니지만 목표대학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었죠. 하지만 2,3학년 내신을 따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한 결과 전 과목 평균 내신을 1.13(연고대 기준), 1.22(서울대 기준)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내신은 수시에서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내신은 올리면 올릴수록 좋습니다. 덧붙이자면 이과이기 때문에 내신시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은 단연 수학과 과학이므로 항상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예비 고2와 고3 친구들 중 내신이 별로 좋지 않아 내신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대학에 비해 내신이 너무 낮아서 내신기간에 눈술이나 수능공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노력이 훨씬 적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신의 목표치를 이를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6. 어려움 & 어쉬움

이과는 수학, 과학 / 공부는 겨울방학부터

전 수학 과학에 비해 국어 영어 과목의 접수가 항상 밀집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판 3달 동안 수학, 과학의 공부시간을 줄이고 국어 영어 공부에 집중했지만, 수능은 역시 국어, 영어를 제일 망쳤습니다. 요지는 수학 과학의 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수능뿐만이 아닌 수능 후에 치르는 눈술이나 심층면접에 대한 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잊어버렸던 감각을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든 수학,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비 고3 겨울방학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며 꼼꼼히 다져왔던 기초가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초에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이 사고력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막판에 가서 국어, 영어 같은 단기간에 안 되는 과목들이 훈들리면 정말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겨울방학 때 쉬엄쉬엄 하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초,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온 친구들을 생각하면 예비 고3 겨울방학은 공부를 시작하기에 절대 이쁜 시기가 아닙니다. 과탐까지는 아니어도 국영수만큼은 이 겨울방학 2달 날瘗한 긴 시간동안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7. 조언

서울대가려다 대학 못 간다

혹시 예비 고3 수험생 과학팀구 2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정시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명과학2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서울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고가의 학원교재와 유명하다는 대치동 문제집까지 풀어가며 완벽하게 대비했지만 만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각종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등급컷을 봤을 때 제 접수가 1등급이 찍혔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당일 1등급 것은 무려 3점이나 높아졌고 저는 2등급이라는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과탐 2과목은 정시지원에서 중요한 지표인 백분위와 표준점수도 1과목 대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등급컷이 높아 시험이 쉽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막강한 실력의 표본수준과 마지막 시험이라는 변수 등을 고려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에 대한 환상이 컸기 때문에 2과목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영수가 만점에 수렴하거나 서울대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다면 2과목 선택을 추천하지 않지만, 2과목을 꼭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고 느꼈던 것들의 아주 일부만을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부터 쓴 조언들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모두 제 입장에서만 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내신위주의 학생부전형이 아닌 수능이나 눈술로 대학입시에서 대박을 터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남은 시간동안 학업에 임하실 때에는 마지막으로 다음 한 가지를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목표의식을 가져라'

제 고3 1년간의 목표는 전과목 수능 만점이었습니다. 뛰어난 목표의식은 자신을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수능 만점이라는 어찌면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수능만점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치열하게 공부했던 과정이 지금 이 자리의 저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3 일년 남짓한 시간은 굉장히 힘들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끗끗이 자신을 믿고 공부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보면서 내년에 있을 17학년도 입시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춰 공부를 하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학년 김준석



1. 지원대학 / 학과 / 전형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논술전형
2. 내신등급 / 수능 최저 반영 유무
내신 2,6등급, 수능 최저등급 2등급 2개(수학 과학 반드시 포함 + 과학은 두과목 평균등급)
3. 집중 준비 기간
논술- 수리논술: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과학논술: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4. 준비한 내용

내신점수에 비해 모의고사 점수가 잘나오는 편이라 정시를 생각해두고 수시는 논술위주로 준비하게 되었음.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등급 때문에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수시, 정시 모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수능 공부를 주로 해야 했다.

논술전형의 수리 문제는 점점 쉬워지는 추세다. 수리논술 준비는 수능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각 학교 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논술전형의 과학 문제는 교과과정에서 나온다고 하고 실제로도 그랬다. 보통 수능공부할 때 교과서는 보지 않는데 과학논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과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5. 성공 내용

평소 모의고사에 비해 수능점수가 잘나오지 않았고 수능 최저등급만 겨우 맞추었다.

다행히도 논술준비를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논술전형을 통해 낮은 수능점수에도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6. 후배에게 하고 싶은 조언

입시방향을 빨리 잡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면 주변 선생님들께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시전략이 대략적으로 잡히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입시를 할 수 있다.(입시 방향은 대략 2학년 중간쯤에 나타나는 것 같다. 그 전까진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입시전략이 논술, 정시 쪽 이더라도 내신기간 때 내신공부는 꼭 열심히 해야 한다. 내신기간에 집중적으로 한 공부는 기억도 오래가기도 하고 내신공부를 통해 공부했던 부분과 안한 부분은 천지차이가 난다.

공부가 잘되는 자신만의 시간대를 찾아야 한다. 난 저녁 잡이 많은 편이라 밤 늦게 공부하려고 하면 항상 즐기지만 하고 다음날까지 피곤했다. 그래서 3학년때부터 남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꼭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다. 덕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도 안 좋게 되었다.

